

다섯 명의 창립자

2009년 4월

회사는 저에게 최근 지난 30년 동안 가장 흥미로운 스타트업 창업자 5인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누가 가장 흥미로운 사람인지 어떻게 결정하시나요? 저에게는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테스트 같습니다.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5명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투자하는 회사들과 이야기할 때 누구를 예시로 삼는가? 나는 누구의 말을 자주 인용하는가?

1. 스티브 잡스

스티브는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창업자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스타트업 문화가 애플의 문화입니다. 그는 최초의 젊은 창업자였습니다. '미친 듯한 대단함'이라는 개념은 이미 예술계에 존재했지만 1980년대에 회사에 도입하는 것은 참신한 아이디어였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30년 동안 흥미를 잃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인기 소설가의 새 책을 기다리듯 Apple의 새로운 제품을 기다립니다. 스티브가 직접 디자인하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그가 CEO가 아니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스티브는 영리하고 추진력이 강합니다. 실리콘밸리의 많은 사람들 역시 그렇습니다. 그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그의 디자인 감각입니다. 잡스 이전에는 대부분의 회사가 디자인을 사소한 부가 가치로 취급했습니다. 이제 애플의 경쟁자들은 디자인의 가치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2. TJ Rodgers

TJ 로저스는 스티브 잡스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실리콘밸리 CEO 중 최고의 작가일 수 있습니다. 저는 아마도 그에게서 스타트업의 사고 방식에 대해 다른 누구보다 많은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가 쓴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잔인할 정도로 솔직하고, 구식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쓰레기통에 버리면서도 이념보다는 실용주의에 따라 움직인 그의 사고방식을 재구성하는 데서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처음 읽은 그의 에세이는 너무 감동적이어서 당시 제가 어디에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합니다. '[High Technology Innovation: Free Markets or Government Subsidies?](#)'라는 제목의 에세이를 읽었는데, 저는 하버드 스퀘어 T 스테이션 아래층에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제 머릿속의 전등 스위치를 켜 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3. 래리 & 세르게이

래리와 세르게이를 한 사람으로 취급해서 미안합니다. 저는 항상 그것이 그들에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덕에 구글이 공동창업의 결과물로 보이긴 하죠.

구글 이전에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은 이미 최고의 해커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이 아이디어를 그 누구보다 더 발전시켰습니다. 적어도 초기 단계에서는 뛰어난 해커만 있으면 된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모두 고용하고 그들의 성공을 측정할 수 있는 문제에 투입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 즉 비즈니스 스쿨에서 생각하는 비즈니스의 구성 요소를 포함한 모든 것들은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결과는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최적일 것입니다. 이것이 가설이었다면 이제 실험적으로 검증되었습니다.

4. 폴 부흐하이트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폴 부흐하이트(Paul Buchheit)라는 한 사람이 Google이 이룬 최고의 업적 중 세 가지를 담당했습니다. 그는 검색 다음으로 구글이 가진 가장 인상적인 기능인 지메일의 원저자입니다. 또한 애드센스의 첫 번째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으며, 구글의 모토인 "악해지지 마세요"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한 강연에서 제가 투자하는 모든 스타트업에게 강조하는 말이 있는데, '초기에는 많은 사용자가 좋아하는 것보다 소수의 사용자가 정말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스타트업에게 열 문장으로만 말할 수 있다면 이 말이 그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현재 그는 Friendfeed라는 스타트업의 공동 창업자입니다. 이제 겨우 1년이 지났지만 이미 밸리의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Google에서 가장 큰 아이디어 세 가지를 담당한 사람이 더 많은 아이디어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5. 샘 알트만

이 목록에 YC가 투자한 회사의 창업자를 언급하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샘 알트먼은 그런 어설픈 규칙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가 이 리스트에 오르고 싶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솔직히 샘은 스티브 잡스와 함께 제가 스타트업을 자문할 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창업자입니다. 디자인에 관한 질문에는 "스티브라면 어떻게 할까?"라고 묻지만 전략이나 야망에 관한 질문에는 "샘이라면 어떻게 할까?"라고 묻습니다.

Sama(Sam.A 인듯?)를 만나면서 제가 배운 것은 스타트업에도 승자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스타트업 투자는 경마에서처럼 승자를 뽑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덜 적용됩니다. 그러나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